"지역정론지 제작에 적극 참여" 다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2005 춘계수련대회 개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김기호)은 지난 16일 영중면 소재 백로주유원지에서 2005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김기호)은 지난 16일 영중면 소재 백로주유원지에서 2005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정론지 포천신문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회식과 게임, 4행시, 7행시 작성,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수련대회는 40여명의 주부명예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기호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의 하늘 아래 이렇게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련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하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축사를 통해 "주부명예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포천신문이 포천사회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퀴즈를 통해 포천신문의 일반현황은 물론 시사상식에 대한 점검의 시간도 가졌으며 인간윷놀이 게임을 실시하여 공동체의식을 키우기도 했다.

특히 '포천신문'으로 4행시를 '주부명예기자단'으로 7행시를 지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 포천신문에 대한 주부명예기자단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4행시와 7행시 작품

▶정지순(소흘읍지부)
포(포천을 사랑하는 명예기자단 여러분) 천(천지가 뒤흔들리고 포천이 흔들릴수 있도록)신(신명나는 백로주 단체모임의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시고) 문(문제는 일으키지 맙시다)

▶박부남(일동면지부)
포(포유동물은) 천(천천히 걷기를 시작합니다) 신(신나게 다니다 보면) 문(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천천히 걸음마를 시작하면 언젠가는 달릴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큽니다)

▶장순호(일동면지부)
포(포화지방의) 천(천가지 일들을) 신(신문기사에 실어) 문(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시민의 발판을 삼자)

▶정경숙(이동면지부)
포(포지션 넘버 원) 천(천하를 얻었습니다) 신(신이 우리에게) 문(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윤창애(관인면지부)
포(포소리 들리는 포천에서) 천(천군만마 소리들어) 신(신바람 나는 포천신문 만들어) 문(문화의 꽃을 피워봅시다. 파이팅)

▶김미경(영북면 지부장)
포(포천신문의 가장 아름답고) 천(천사같은 주부명예기자단) 신(신문사의 꽃으로 우리만의) 문(문화를 만듭시다)

▶천란희(소흘읍지부)
포(포천에 오니) 천(천사처럼 사는 좋은 사람들뿐이고) 신(신비로운 고장 포천이 나를 설레게 하네) 문(문화의 고장 아름다운 포천시 파이팅!)

▶남만우(일동면 지부장)
포(포천에는 그늘진 곳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천(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신(신바람나는 소식을 하나 더 전할까 합니다) 문(문제해결과 바른 정보 전달은 당연히 포천신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 모두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파이팅!)

▶임경순(부단장)
포(포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포천신문) 천(천년의 역사를 이루기를) 신(신선하고 시원하고 생동감 넘치는 언론사로) 문(문제가 있으면 연락만 줘 봐. 무엇이든 해결해 줄게)

▶조장희(선단동지부)
포(포천의) 천(천에 얼굴을 가진) 신(신들린) 문(문인이 되리라)

▶김진숙(관인면 지부장)
포(포부를 가지고) 천(천만의 구독자를 만들어) 신(신나게 전하는) 문(문화인의 신문을 만듭시다)

....

▶김진숙(관인면 지부장)
주(주부들이여) 부(부지런히 뛰어) 명(명예로운) 예(예절의) 기(기자의 본을) 자(자랑하는) 단(단원의 일원으로 노력합시다)

▶김기호(단장)
주(주옥같은 품위와) 부(부지런한 근면성이 겸비된) 명(명성과 자질을 갖춘) 예(예사롭지 않은) 기(기자단 여러분) 자(자아성취와) 단(단아한 품행으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의 이름을 길이 빛냅시다)

▶남만우(일동면 지부장)
주(주전선수가 되기 위하여) 부(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명(명쾌한 사람) 예(예리한 사람) 기(기가 센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자(자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단(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그리하여 존경받는 인물로 남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램이지요)

한국은행과 관인면 탄동2리는 지난 13일 탄동리 마을회관에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갖고 도농교류를 통한 상호지원과 협력을 다짐했다.

탄동2리, 한국은행과 자매결연

도농교류 통한 상호지원과 협력 다짐

한국은행(총재 박승)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 포천시 관인면 탄동2리(이장 조용철)과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농협중앙회가 기업과 농촌의 도농교류를 통한 상호지원과 협력을 위해 연중 실시하는 농촌사랑 1사1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결연식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 관계자,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조용철 마을대표와 마을주민 및 연예인 농촌돕기 운동본부 여운계, 김형자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한국은행이 노래방기기를 마련해 마을에 기증하였고 마을에서는 답례로 지역 특산물인 버섯과 더덕을 전달했다.

박승 한은총재와 참석자들이 이앙기를 타고 직접 벼심기 체험을 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용철 마을대표는 인사말에서 "농촌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탄동2리 마을은 오리농법 등에 의한 친환경작목반을 운영,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통한 상생의 관계 유지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 한은총재는 결연사를 통해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보화마을 지정 예정인 이 마을의 정보화지원 및 마을주민 초청 행사, 직원 농촌체험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해 마을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사랑1사1촌 자매결연은 현재 3천300여건이 성사되었으며 이날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삼성계열사, KT, 우리은행이 동참하는 등 정부부처와 기관, 일반기업체의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포천시에서는 군내면 직두1리와 경찰청, 영중면 성동3리와 (주)청미원, 영중면 금주2리와 한국전력 포천지점, 영중면 양문3리와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 등 총5개의 마을이 자매결연을 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사회의 거울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다짐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춘계수련대회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지난 18일 2005년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위원 상호간의 단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지난 18일 2005년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위원 상호간의 단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9시 소흘읍사무소를 출발해 철원 고석정과 노동당사에 들러 희미해져 가는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노동당사를 둘러본 뒤 가진 오찬에서 운영위원들은 위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포천신문이 포천지역의 진정한 언론매체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련대회에 참석한 최호열 발행인은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처음과 같이 늘 최선을 다해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이용 운영위원장은 "포천신문이 늘 깨어 있는 정론지로서 포천사회의 거울이 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론지의 길을 갈 수 이있도록 운영위원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색'

전통생활기술 '천연염색반' 교육 인기

포천시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10여 회에 걸쳐 마련한 천연 염색반 과정에는 모두 24명이 참여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두충, 정향, 치자 등 한약재를 재료로 활용, 매염재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고 있다.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천연염색은 염료의 추출과정과 염색과정이 복잡해 화학염료가 개발된 19세기 이후부터는 점차 맥이 끊어지는 듯했으나, 전통문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친화적인 염색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화현면 김진분(화현면) 씨는 "염색과정이 비록 어렵고 고되지만, 세상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색을 얻을 수 있어 큰 기쁨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천연염색의 경우, 한약재뿐만 아니라 우리주변에 있는 각종 들풀과 꽃, 농림부산물 등을 염재로 활용할 수 있어 무궁무진한 색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천연염색반 수료생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해 계속 폭넓은 염색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나아가 전통염색을 체험관광의 일환으로 상품화한다면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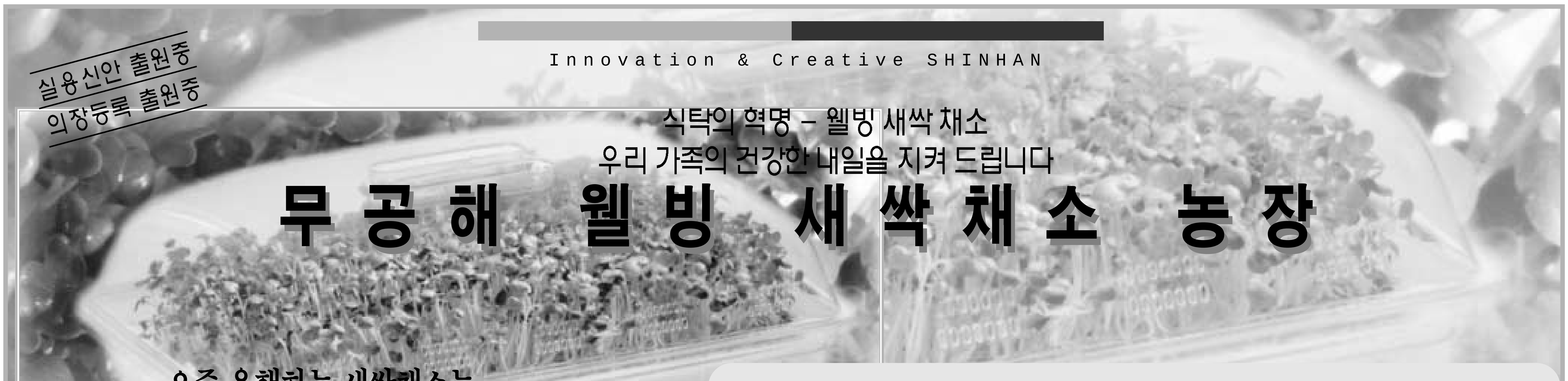
한편 6월부터 10월까지는 전통생활기술 보급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바느질법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가르치는 규방공예반이 개설된다.

바늘방석, 선물용포장보, 혼서지보, 폐백보 등 17가지의 작품을 만들게 되며 11월에는 천연염색 작품과 함께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규방공예방 수강희망자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부서(031-530-8564)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천연 염색반 과정 수강생들이 천연염색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새싹채소는...
씨를 발아시켜 그 싹을 먹는 채소를 새싹채소라고 합니다.
식물은 보통 새싹이나 어린잎이 돋아나는 시기에 성장이 완성합니다.
이시기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새싹과 어린잎이 모여있고 그 에너지가 새싹이나 어린잎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식물들은 완전히 자란것에 비해 영양소 등의 성분이 훨신 많습니다.

※ 새싹채소 기르는 방법
1. 새싹채소 재배용기에 물을 담습니다.
(물은 정수된 물이나 수돗물을 1일이상 받아놓은 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용기위에 씨앗 받침대를 올려놓은 뒤 부직포나 키친타올로 그 위를 덮습니다.
3. 미리 6시간 정도 물에 불려놓은 씨앗을 받침대에 골고루 뿌려준 뒤 뚜껑을 덮습니다.
4. 싹이 틀때까지 덮어둔 후 발아가 시작되면 덮개를 벗기시면 됩니다.
(삭이 튼 후 1~2일에 한번정도 재배용기안의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씨를 뿌린 지 7~10일 정도면 거두어 먹습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1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화기에 주의하시고 높은 열에 주의하십시오.
– 씨는 어린이가 먹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재배하면서 농약이나 기타 살충제 등을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 씨앗이 물에 잠기면 발아하지 못합니다.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
1. 품명 : 새싹채소 재배용기 셋트
2. 재질 : 랜덤PP(폴리 프로필렌)
3. 내열, 내냉온도 : 80℃~-20℃
4. 제조판매원 : 신한케미칼
5.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434-15
6. 반품 교환처 : 제조원 및 판매원
7. 주의사항 : 설명서 참조
8. 규격 : 300×430×160mm

Shinhan
Made In Korea
TEL.031-544-0884